

“El Anatsui: Topology of Generosity”, presented by Barakat Seoul, sheds light on the potential of change that a single artist can generate. In contemporary art, discussions on the actual power of the arts mainly recall socially participatory works, pedagogical activities, or collective activities based on manifestos. This exhibition however focuses on the inner strength of the artist, a strength that started from within and, through many years of work, has brought forward changes in the lives and the environment of the people that surround him, equally focusing on El Anatsui’s attitude as an artist as reflected by his works.

Anatsui’s most representative works are large-scale installations reminiscent of tapestries, created by processing and connecting with copper wire thousands of used caps discarded from the bottles of drinks consumed in Nigeria. He has achieved recognition among the international art circles with these works, receiving the Golden Lion for Lifetime Achievement Award at the 2015 Venice Biennale and having his works exhibited and collected in renowned galleries and museums around the globe. Having studied art at the Kwame Nkrum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Kumasi, Ghana, El Anatsui studied the techniques of classical Western painting but sought to cultivate his own techniques that would not be tied to conventional art practices. While ceaselessly experimenting with a variety of materials and media around him such as wood, stone, and earth, Anatsui came to transform caps of discarded alcohol bottles into unique and elaborate metallic sculptures.

Discovering in the caps of these discarded bottles traces of the individuals who have used and handled them, Anatsui weaves them together into textile-like works. Woven in the warp and weft of these metal objects are the interconnected narratives of the villagers related to these caps. The task of thus linking villagers and his works is in itself the way in which the artist forges relationships with his others. Discarded after use, the bottle caps are symbols not only of memories harbored by individuals who have consumed the drinks but also of memories harbored by the collective, recalling the historical fact that alcoholic beverages began to be supplied to Africa by Western countries. They summon the traumatic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Africa, cutting through slavery and the colonial period.

Anatsui’s works thus are the fruits which combine the participation of individuals and, at the same time, they are fabrics where historical time and present moments intersect. His work, where multi-layered narratives

are combined to form a network, is like a metaphor of the network systems of our era, which are connected through Internet networks. Just like a network, where individual nodes are linked without hierarchy, Anatsui equally avoids becoming an absolute overseer in his art, and allows others to participate in the entire art process from the production to the installation of his works. By prompting villager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reation of his work and by also by allowing every work to merge with every exhibition space, he opens the possibility of diverse interpretations to viewers.

The title “El Anatsui: Topology of Generosity” suggests that the concept of topology is an approach of expressing the artist’s attitude of generosity and of interpreting his work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First presented in early 20th-century mathematics as a theory of space, “topology” has since then been used in diverse fields as a conceptual term referring to spaces and objects that are transformed by connected relationships instead of being fixed in one place. Instead of being fixed, objects in space are fluid and change and expand according to the arrangement of diverse nodes, the balance of power is distributed across the center and the periphery is dispersed, whil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is erased, making thus possible the creative formation of relations.

In the exhibition space, Anatsui’s works will be compared to topological objects, which by crumpling and folding, will transform the angular exhibition space. In these space viewers will be able to form personal relationships with the works, thus adding to the extension of meanings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paces. Interpreting El Anatsui’s work through a topological spectrum, allows one to see past a modern understanding of ethnic and topographical classifications of Africa, demonstrating that multiple perspectives and diverse interpretations of his art are possible. A strong sense of correlation to the paintings of Gustav Klimt and to the elaborateness and spirituality of Byzantine art becomes also evident in his work, allowing El Anatsui to be viewed beyond his African origins. His artistic world opens up horizons of thought, where disparate experiences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locations and contexts in which the works are experienced. In tandem, the artist’s ethos, which sees life as continuously moving and changing, is reflected in his works.

Anatsui has never stopped experimenting with new medium and accepting different undertakings. “El Anatsui: Topology of Generosity” also offers the opportunity to present the artist’s latest prints created in collaboration with Factum Arte in Madrid. His artistic experimentation encompasses the past and the present, pursues the fundamental strength of the arts and aims at the future. On new horizons cultivated through the trajectory of his life, Anatsui is proposing a perspective from which the arts can be seen in a new light.

바라캣 서울이 선보이는 <엘 아나추이: 관용의 토폴로지>전은 작가 한 사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의 힘을 조명한다. 현대미술에서 예술의 실질적인 힘에 관한 논의는 주로 사회참여적인 작업이나 교육 활동, 혹은 선언문을 바탕으로 한 단체 활동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개인의 내면에서 시작하여 오랜 기간 작업을 지속하며 주변의 삶과 환경의 변화를 이끈 작가의 ‘내적인 힘’, 곧 엘 아나추이의 예술에 나타나는 작가적 태도에 초점을 둔다.

엘 아나추이의 대표작은 가나 공화국의 마을 아수카(Asuka)에서 소비된 수 천 개의 병뚜껑을 가공하고 구리 선으로 엮어 태피스트리처럼 만든 거대한 설치 작품이다. 그는 이 작업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의 평생공로 황금사자상을 받았고, 전 세계 유수의 미술관과 박물관에 소장되는 등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다. 가나의 쿠마시 기술과학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한 작가는 전통적인 서양 고전 회화의 기법을 수학하였으나 관습적인 미술 교육에 매이지 않는 자신만의 기법을 위해 노력했다. 나무, 돌, 흙과 같은 주변의 다양한 소재와 매체를 끊임없이 실험한 엘 아나추이는 버려진 술병의 뚜껑을 가공하여 독특하고 화려한 금속성의 조각 작품을 만들게 된다.

엘 아나추이는 버려진 병뚜껑에서 그것을 사용한 개개인의 흔적을 포착하고 이를 직물처럼 엮는다. 이 금속의 씨실과 날실에는 소재의 공급자와 운송자, 작품의 디자인 작업자와 여러 관계된 마을 주민의 이야기가 얽혀있다. 이렇게 마을 주민과 작품을 엮어내는 작업은 그 자체로 작가가 타인과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이다. 쓰고 버린 병뚜껑은 이를 소비한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구미권 국가들에 의해 아프리카에 술이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는 ‘집단의 기억’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는 노예제도와 식민지 시대를 지나는 아프리카의 트라우마적 근 현대사를 호출하고 있다.

이처럼 엘 아나추이의 작품은 개개인의 참여가 엮인 결과물이자, 역사적 시간과 현재의 순간이 교차하는 직조물인 셈이다. 다양한 층위의 내러티브가 결합하여 하나의 그물망을 이루는 그의 작업은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현대의 네트워크 체계에 대한 은유와도 같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예술을 통해 보여주는 관용의 태도이다. 위계적인 중심 없이 각 교점(node)이 연결된 네트워크처럼, 엘 아나추이는 작가가 절대적인 감독관이 되는 것을 지양하고 작품의 제작 및 설치, 감상 등 모든 과정에 타인의 개입을 허용한다. 그는 가나의 마을 사람들을 작업에 참여시키고, 전시 공간에 따라 설치 방식을 변형하면서 관람자에게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바라캣 서울의 <엘 아나추이: 관용의 토폴로지>전은 이러한 작가의 관용적인 태도를 표현하거 그의 작품을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토폴로지(topology)의 개념을 제안한다. 토폴로지는 20세기 초 수학에서 공간의 이론으로 처음 제시되었는데, 이후 여러 분야에서 고정적으로 고착되지 않고 연결된 관계에 의해

변형되는 공간과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 공간안의 물체가 고정적이지 않고 여러 교점의 배치에 따라 유동적이고 변화하고 확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에, 중심과 주변으로 나뉘던 힘의 균형이 분산되고,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지고 창의적인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전시장에서 그의 작품은 토폴로지적 대상에 비유되어, 직각의 전시 공간을 ‘구기고’, ‘접어’ 변형시킬 것이다. 이 공간 안에서 관객은 작품과 사적인 관계를 맺으며 의미의 확장과 공간의 변형을 더하게 된다. 이러한 토폴로지적 사유는 그간 아나추이의 작품이 아프리카의 민족적·지형학적 분류로 해석되던 것을 넘어 다양한 시각을 통한 해석이 가능함을 나타낸다. 우리가 잠시 그가 아프리카인임을 잊을 수 있다면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클림트 회화와와의 연관성이나 비잔틴 미술의 화려함과 영성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sup>11</sup> 그의 작품세계는 작품이 설치된 장소와 맥락, 작품과 마주하는 관람자 개개인에 따라 다른 체험을 하도록 유도하며, 폭넓은 사유의 지평을 열어준다. 이는 삶을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며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작가의 태도와 무관하지 않다. 엘 아나추이는 일흔이 넘는 나이에도 새로운 매체의 실험과 또 다른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엘 아나추이: 관용의 토폴로지> 전에서는 마드리드의 팩툼 아르테(Factum Arte)와 함께 협업한 작가의 프린트 신작도 선보인다. 그의 예술적 실험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고, 본질적인 예술의 힘을 추구하며 미래로 향한다. 삶의 궤적을 통해 일궈낸 새로운 지평에서 엘 아나추이는 ‘예술’을 다르게 보는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

<sup>11</sup> 만약 엘 아나추이가 비엔나 출신의 작가였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의 작품이 클림트의 금빛을 닮았다고 여겼을 지도 모른다. 혹은 그의 작품이 중세 비잔틴 미술의 화려함과 영적 느낌을 자아낸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은 아프리카인이라는 엘 아나추이의 정체성을 일면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 작품을 인식하려는 태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엘 아나추이의 작품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미술 전반을 서구적 시각으로 정의하려 했던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다. In Conversation: El Anatsui with Susan Vogel, Feb 10, 2013. (영문버전 있음. 번역 불필요)